

‘아시아 최고의 미술축제’ 화려한 껍질부터 벗어라

리셋! 스무살 광주비엔날레

〈상〉 ‘불타는 터전’ 정체성 위기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신정아 사건’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흥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논란은 ‘세계 5대 비엔날레’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라는 화려한 속에 감춰져 있던 광주비엔날레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정체성 혼란, 조직 내부 문제 등은 광주비엔날레를 ‘개혁’이라는 수술대 위에 놓았다. 광주일보에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광주비엔날레의 문제와 과제 그리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광주비엔날레가 흔들리고 있다. ‘세월오월’ 전시 불가 결정은 광주비엔날레 창설의 모태가 된 ‘광주정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면서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0년간 세계 미술계에서 쌓아온 위상을 깬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지역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수많은 후발 비엔날레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외적 요인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직의 문제〉=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책은 지역 사회 외면과 전문가 양성 미흡이었다. 세계화를 의지하면서 정작 지역을 돌아보지 못했던 재단의 행동은 지역 사회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전문가 양성도 재단이 지난 20년간 소홀했던 것 중 하나다. 형식적인 국제 큐레이터 코스는 결과적으로 소모성 행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재단 내 직원 중 48.6%가 이직 및 퇴직을 생각할 정도로 조직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부족했고, 실제 많은 인력이 재단을 떠났다. 그동안 재단 내부 직원에 대한 재투자도 전무해 세계미술 시장의 다양한 트렌드를 읽는데 한

官에 흔들리고 민과 소통부족
국비 축소·기금 정제에
지역 전문가 양성도 미흡

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여전히 부족한 재단 내 인력 확충과 함께 광주시 파견 공무원을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때다.

〈비엔날레 흥수와 예산 축소〉=올해 광주비엔날레 기간 부산비엔날레 등 전국에서 5~6개의 대형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렸다. 그만큼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 20개 수준이던 세계 각종 비엔날레도 최근 3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각종 비엔날레의 난립은 신선함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광주 시민조차도 격년으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은 20년의 운영 노하우지만 이마저도 대중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18만여 명으로 2012년(22만8400여 명), 2010년(32만8000여 명)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비엔날레의 난립은 정부 예산 축소에 이어졌다. 제5~8회까지 4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던 국비지원이 제9회 때부터 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방비를 늘리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 행사 예산은 90억원이었다.

특히 280억 원에 머물고 있는 기금과 이자 수익 감소는 2012년 기준 수입(72억 원)보다 지출(81억 원)이 많아지는 사태를 만들기도 했다. (2면으로 계속)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은빛 가을 은륜의 질주

지난 8일 영산강자전거길에서 열린 ‘농촌사랑! 자전거사랑! 2014 그린(Green) 자전거축제’에 참가한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산강변 대교를 질주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는 자전거사랑전국연합 광주본부 회원 등 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20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출범... 넘어야 할 산 많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위원장 정찬용)는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향한 대장정을 선포했다. <광주시 제공>

2014 광주비엔날레 폐막... 관람객 18만명 찾아

2014광주비엔날레가 9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후 6시40분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정동채 대표이사, 제시카 모건 예술감독, 자원봉사자, 도슨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했다.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지난 9월5일 개막한 광주비엔날레에는 38개국 103팀의 작가가 참여해 모두 111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별전 ‘달콤한 이슬-1980 그후’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지난 2012년(22만8400명)보다 크게 줄어든 모두 18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은 줄어졌지만 올해 관람객 만족도가 66.6%로 조사되는 등 2010년(48%)과 2012년(56%)에 비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현대차 “협이 없었다” 선긋기 정부 ‘예타’ 미뤄 예산 확보난

광주시가 민선 6기 최대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이하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위원장 정찬용) 출범식을 개최했다.

윤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광주에 자동차밸리를 조성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연봉 3000만~4000만원대의 자존감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희화 국회의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윤 시장께서 추진하는 자동차 밸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쁜 의사 일정 때문에 짧은 인사말로 축사를 대신한 이정현 의원은 “여러분도 윤 시장께서 왜 나를 초청했는지 잘 알 것”이라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축전을 보내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밸리 조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는 62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차 공장이 있는 데다, 정부가 최근 현대차그룹과 광주시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공동 운영할 파트너로 묶어준 것도 큰 힘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자동차를 미래산업으로 ‘눈독’ 들이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은 최대 약재로 꼽힌다.

이번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그룹의 협조 가능성’을 보도하자, 현대차측에 정지권과 전국 자치단체의 압박성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인데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미루기 등 정부 일각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박진수기자 lucky@kwangju.co.kr

해원 경구오목사 출생 100주년 감사예배
11월 11일(화) 17:00~20:00
율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제8회 해원기념강좌
11월 12일(수) 10:40~14:00
광신대학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000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